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mailto:sa3119@nate.com)



강 론



## 선교는 하느님의 일이자 교회의 일

오늘 1독서 말씀이 포함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유다교의 한계를 벗어나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이 주축이었던 초대 교회는 비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교 입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였다.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방인들의 음식 문화였다. 유대인들은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세세히 규정하고 철저히 지켰다.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러한 유다교의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교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선교를 위해 친히 활동하신다. 여기서 하느님은 선교의 주도권이 당신께 있음을 보여주신다. 먼저 하느님은 베드로에게 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신다. 베드로가 허기졌을 때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있었다. 하느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베드로는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망설였다.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모든 동

---

물을 깨끗하게 만드셨다고 한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세 번이나 하느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결국 그 동물들을 먹지 않는다. 오랜 관습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하느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차마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이 신비 체험은 베드로에게 깊이 생각할 거리를 준다. 베드로가 그 체험의 의미를 곱씹고 있을 때 하느님은 다른 쪽에서 활동을 시작하신다.

하느님의 천사가 로마의 유력한 가문 출신의 코르넬리우스에게 나타난다. 이 인물은 우리 교구 내의 우곡에 살던 한국 최초의 수덕자 농은 홍유한 선생과 닮은 면이 있다.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홀로 하느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던 농은 선생처럼, 코르넬리우스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할례도 받지 않았지만, 하느님을 알고 경외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표현을 따르면 하느님께서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말씀의 씨앗을 뿌려 두신 것이다. 하느님의 천사는 코르넬리우스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고, 이 말씀을 따라 코르넬리우스는 심부름꾼들을 베드로에게 보낸다.

이때 자신의 신비 체험을 통해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깨끗한 민족과 부정한 민족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던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그들과 함께 코르넬리우스 집으로 간다. 거기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 안에 있던 말씀의 씨앗은 그 싹을 틔우고, 그런 그들 위에 성령이 내린다. 우리는 흔히 성령은 세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은 세례를 앞서 선교 과정 안에 이미 현존함을 보여준다. 성령의 강림을 본 베드로는 더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은 한편 선교사를 가르치며 준비시키고, 다른 한편 선교의 대상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두신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신다.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는 성령이 함께하신다. 이처럼 선교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느님께 있다.

하지만 하느님은 만백성을 위한 당신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해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신다. 우리 그리스도교인은 세례받을 때부터 근본적으로 그 본질이 선교사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늘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한다. 하느님 구원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봉헌해야 한다.

**영덕 본당 함원식 이사야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당신의 자비하신 사랑을 한없이 주셨고, 그 하느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 사랑 안에 머물라고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 생활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43번 ‘영원한 생명’

### 본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10장 25절-26절.34절-35절.44절-48절

**안 내 :**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성령을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려주시어 모두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해주셨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2독서 :** 요한 1서 4장 7절-10절

**안 내 :**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묵 상 :** 사랑이신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앞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생명을 더해주시고 살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15장 9절-17절

**강 론 :** ‘선교는 하느님의 일이자 교회의 일’(1-2쪽)

**예물준비성가 :** 25번 ‘사랑의 하느님’

**영성체성가 :** 174번 ‘사랑의 신비’

---

## 영성체 후 묵상

사랑한다는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아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떠올리기만 하여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넓어집니다.  
그 아름답고 따스한 사랑을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정없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는 주님의 사랑은  
그 분 안에 머무를 때에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는 사랑에는 늘 끝이 있으나  
주님의 사랑은 그 끝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 <침묵>

주님 사랑 안에 깊이 머물러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색깔과 어떤 맛인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머물러 봅시다.  
그래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공지사항

**파견성가** :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 ※ 공소사목 성금

이현경님	50,000원	모서공소	100,000원
------	---------	------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37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림

###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천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3

- 일시 : 5월 14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 성체분배권 수여 교육

- 일시 : 5월 16일(수) 10:00 - 13: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교구 내 성체분배 소임을 수행하게 될 수도자, 선교사 및 평신도
-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 신청 : 5월 8일(화)까지 사목국으로

### ■ 2018년 2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2만원(1인 1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5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 2018년 교구 천교의 날 및 제27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 일시 : 5월 22일(화) 09:00 - 16:00
- 장소 : 안동대학교 대운동장 및 테니스장
- 종목 : 테니스, 족구, 피구, 윷놀이, 줄넘기, 지구별 줄다리기
- 참가자격 : 안동교구 내 가톨릭 신자 (단, 예비신자는 참가 불가)
- 주최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안동지구 지구사목협의회
-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

###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5월 6일(부활 제6주일) : 사별탕강 본당 (견진성사)
- 5월 13일(주님 승천 대축일) : 남성동 본당
- 5월 20일(성령 강림 대축일) : 청송 본당 (견진성사)

### ■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 일시 : 5월 13일(주일) 9:30 ~ 17:00
- 장소 : 함창 상지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
- 준비물 : 미사준비, 운동화, 간편한 복장
- 참가비 : 10,000원 / 1명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정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로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유진 유리아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생명환경연대 봄철 생태기행

- 일시 : 5월 12일(토)
- 장소 : 백두대간 나동강 세평 비경길 (송부역 - 부천역 구간)
- 대상 :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회원 및 함께 걷고 싶은 분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북부정찬훈 010-3827-2275  
문경 아장수 010-8361-2087  
상주 흥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20,000원(중식은 개인 준비)

### ■ 농은수련원 어르신 피정

- 주제 : 말씀과 함께하는 은빛청춘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30명 이내
- 일시 : 5월 18일(금) 14:00 - 19일(토)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 (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 652-0591 / 010-2785-0591

###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미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 (15쌍)
- 일시 : 5월 26일(토) 14:00 - 27일(주일)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 (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제49차 안동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 19:00 - 19일(주일)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기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여성), 문서편집 기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 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 제8회 생명 주일 담화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 하느님께서 선사해 주신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풍성하게 비추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여덟 번째 생명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을 수호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로 다짐합니다. 올해는 복자 바오로 6세 교황께서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을 반포하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간 생명을 전달하는 지극히 중대한 부부의 임무를 강조한 이 회칙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내세우고, 생명을 환대할 책임이 있는 부모의 소명을 드높여 주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먼저 앞장서 새 생명을 환대하고,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을 받으며, 이웃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2.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습니다”(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165항).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모인 가정이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환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사랑의 기쁨」, 166항 참조). 그러나 오히려 우리 현실은 자녀를 낳은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이가 있기까지 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이 낳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삶의 첫 순간부터 거부당하고 버려지며 그들의 어린 시절과 미래를 박탈당한다면 ……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사랑의 기쁨」, 166항 참조).

3.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특히 첫 순간부터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환대하지 못하는 세상의 현실을 각성하고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생명권은 방금 태어난 유아에게도 성인 못지않게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11항 참조). 교회는, 인간 생명을 임신 첫 순간부터 존중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책임이고, 국가 차원에서 낙태 방지와 생명 보호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인간 생명」, 14항 참조). 태아의 생명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하고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생명의 복음」, 55항 참조).

4.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 운동의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이 비록 저출산 국가이

---

지만 원하지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난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면서,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여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한쪽에서는 태어나야 할 아이와 이미 태어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비교하면서, 국가에서 피임 대책과 자연 유산 유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거절당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의 현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태아를 처벌해야 한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인간과 아이의 권리를 다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사랑의 기쁨」, 166항 참조)

5. 사회 한쪽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자기 몸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경험한 이들, 그리고 미혼모와 미혼부를 비롯하여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아파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낙태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들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또한 그러한 결정이 현실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비롯하여 홀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그들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자 나서야 합니다.

6.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시작부터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믿으며, 이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들입니다. 특히 생명의 돌봄이 시작되는 **혼인과 가정은 '생명'에 대한 신앙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환대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요한 10,10)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복음 선포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 실천 사항

- 혼인과 가정의 자리가 생명을 환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명의 문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낙태를 경험한 여성과 미혼모, 미혼부를 비롯하여 홀로 자녀를 돌보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일상과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2018년 5월 6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 행복의 조건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한다. 취미생활을 하거나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정신적인 포만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시골에 살면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변변한 문화시설도 없기 때문이다. 농촌을 떠나는 사람도, 지방으로 이주를 망설이는 사람도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가 삶의 질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며 도시의 삶을 부러워했다.

오랜만의 서울 나들이 길에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직접 출연한 뮤지컬을 보고 왔다. 1992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던 것을 2011년 뮤지컬로 공식 오픈한 ‘시스터 액트’는 한국에는 초연이라고 했다. 1,700석이 넘는 공연장은 만원이었다.

‘시스터 액트’는 시종일관 흥이 넘치고 웃음을 선사한다. 디스코, 블루스 등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주며 어깨를 들썩이게 만든다. 재미있는 한글 자막이 뜨고 출연진들의 표정 연기도 볼만하다. 내용도 좋아서 비싼 공연이었지만 잘 봤다 싶었다. 뮤지컬을 보면서 사람은 역시나 서울에서 살아야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도시에 살다 귀향한 지인은 생각이 달랐다. 대도시에 산다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살기에 바빠 여가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농촌에 살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다 각종 공연과 다양한 강좌까지 들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곳에 사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정반대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두 곳에서의 삶을 직접 경험한 지인의 말은 진심일 것이다. 진지한 그의 말은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어쩌면 나는 선입견 때문에 가까이 있는 행복을 멀리서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향한 지인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터득한 것 같아 부러웠다.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다. 그런데도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남들과 비교하려는 마음 탓이 클 것이다. 필요한 만큼 가졌으면서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부러워한다. 나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지인의 말을 들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밴 허영심이었다. 시골에 살면서도 모든 것의 기준은 서울이었다. 같은 공연이라도 서울에서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영화도 개봉관에서 봐야 된다고 믿었다. 아무리 좋은 공연이 찾아와도 눈에 차지 않았다. 뭔가 뒤떨어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외면해 왔다. 보는 시점이 조금 늦을 뿐, 작품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그랬다.

‘시스터 액트’를 보며 행복했던 것도 허영심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공연내용보다는 서울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내한 첫 공연을 봤다는 것에 더 뿌듯해 했다. 나도 여느 서울사람들처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며 스스로 만족했던 것이다.

어느 곳에 살든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지는 모양이다. 지인처럼 ‘시스터 액트’의 주인공 들로리스도 그랬다. 그녀도 처음에는 수녀원의 엄격한 생활방식에 갑갑해하며 수녀원장과 충돌한다. 그러다가 성가대의 지휘를 맡게 되면서 활력을 되찾는다.

긍정의 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동안 내 것 좋은 줄 모르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온 것 같아 부끄러워진다. 무시하며 외면했던 내 오랜 삶의 터전부터 사랑해야겠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